

# 개체체질과 병인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한의학 연구소

## Study on the Correlativity with an Individual Constitution and Etiological Factor

Gyeong-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I studied on the the correlativity with an individual constitution and etiological factor,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the external wickedness invade into human body, the condition of an individual constitution determine whether being attacked with a disease or not. Moreover the contracting and the tendency of a disease are determined from the peculiarity of an individual constitution. And whether being attacked with a disease or not, the contracting and the tendency are possible explained of DONG-GI-SANG-GU(the indentical vigour looking for mutually). The division on the malice for cause of a disease and the symptom of a disease are more and more necessary.

Key words : individual constitution, etiological factor

### 서 론

한의학의 치료기술의 핵심은 변증시치이며, 이는 개체생리 병리를 바탕으로 펼쳐진다. 개인의 개체성을 중시하는 사고는 결국 개체 체질의학으로 연결되며<sup>1)</sup>, 이는 결국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의 방면을 관통하여 변증시치론의 기초가 되었고 한방 임상 실천적인 힘이 되었다.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심신을 통하여 발현되는 병증을 중시하는 경향은 각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치법을 달리 하는 체질의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sup>2)</sup>이라고 판단된다. 體型의 肥瘦를<sup>3)</sup> 포함하여 개체 체질의 차이를 인식한 것은 內經의 여러 편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sup>4)</sup>, 傷寒論 등의 후대 여러 名醫들의 著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각종 개체체질의 특징을 파악하여 臨床 辨證施治의 활용에서 病因과 병기를 분석하고, 병변의 성질과 전변의 추이를 판단하는 자료로 심분 응용한 것이다.

질병 발생 및 변화에 대한 변증시치론적인 인식은 개체 자신의 체질적인 생리병리적인 특성에 근거하는 개체 생리병리론에 기초하고 있다. 개체 내부의 체질적인 특이성이 질병의 발생·전변·치유 등의 차이점에 크게 작용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는 사물 변화의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성에 있으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인체 운동규율이나 질병 과정 중에 표현되는 여러 차이점도 또한 인체 자신의 특질에 근거한다는<sup>5)</sup> 음양론적인 모순론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개체생리와 병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변증시치와 전신형태에 대한 고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病因과 個體體質의 관련성을 고찰한 바 다소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 1. 개체체질의 입장에서 內外因과 正氣 邪氣

질병의 발생은 유기체의 생리평형 상태가 파괴되어 문란과 조절 상실에 이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평형조절 상실로 인한 병리 변화는 어떤 요소의 격발과 유도 및 변화의 상태에서 생긴다. 이 요소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병인이라 말하며

- 1)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p. 57
- 2) 김규열, 장남의 의역사상에 관한 연구, pp. 205-206
- 3) 전태홍, 내경을 중심으로 한 체형의 비수에 대한 고찰, pp.176-188
- 4) 대표적으로 靈樞 陰陽二十五人篇과 通天篇 등이 있다.
- 5) 王琦 主編-김달래 譯, 中醫體質學, p. 195
- 6) (1)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5호, 2002, 10
- (2)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섭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2004, 2
- (3)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2호, 2004, 4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choiyh@deu.ac.kr, Tel : 051-850-7413

접수 : 2005/05/30 · 수정 : 2005/06/23 · 채택 : 2005/07/22

내인, 외인, 불내외인으로 구분한다. 이 3가지 병인학설은 發病 要因의 근원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질병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誘發, 激化, 加重 등의 발전 과정과 성질 등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체 안의 환경은 생리적인 평형상태에서 병리적인 이상상태로 변하는데, 질병의 변화발전은 정기와 사기 양쪽의 투쟁의 결과로 결정된다. 正氣가 이기면 邪氣가 물러가고, 邪氣가 이기면 正氣가 억제되는 것이다. 邪氣는 인체에 작용하는 각종 질병에 이르게 하는 요소의 총칭으로 발병학의 외인이고, 몸 밖에서 침입하여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포함한다. 正氣는 유기체가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의 침습에 대한 저항력과 유기체 자신의 내적 요소인 생리적인 변화상태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외계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능력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으로 부단히 획득된 것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가변성도 갖고 있어서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변화를 발생하기도 한다.

發病學的으로 內因은 주로 유기체 자신의 요소를 가리킨다. 유기체 자신에게 속하는 요소는 질병 발생과 발전에 대해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질병의 성질과 전이와 치유에도 영향을 주는 등으로 개체체질 상태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이유로 개체 체질론의 입장에서는 內因에 해당하는 正氣의 상태를 중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正氣 爲主의 發病論에서 正氣의 質的인 構成에 대한 관찰은 個體 體質의 認識으로<sup>7)</sup>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기와 관련되는 內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生來의인 先天的 體質이며 체질은 각 개체마다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의 糾明을 위하여 病證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逆推하는 것과 몇가지의 체질의 類型을 분류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sup>8)</sup> 病證의 체계적인 분석은 바로 辨證施治의 당위성이 되는 개체체질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였고, 체질의 유형화 작업은 바로 四象體質 등의 類型體質論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證候群에서 同一關係를 분석하여 同一한 變異를 나타내는 證候型을 찾아감으로써 내부의 變異를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辨證施治의 思想은 결국 同一한 變異의 證候型과 개체 체질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지워진다. 따라서 辨證施治의 방법은 個體 體質의 파악과 맞물리게 된다.

## 2. 個體體質과 發病的 關聯性

病因과 관련하여 개체 체질론은 신체에 내재된 체질적인 요소인 내인을 발병의 주요 인자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外界의 각종 발병 인자가 생명체의 내부적인 요소를 통과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상태를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1) 個體體質과 發病與否

한의학은 인간 개체체질의 차이를 인식한다. 각종 개체체질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임상 辨證에 있어서 病因 病機를 분석하고 病變의 성질과 발전 방향을 판단하여 충분히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內經 論痛篇<sup>10)</sup>에서 筋骨의 強弱, 肌肉의 堅脆, 皮膚의 厚薄, 주리의 疏密, 腸胃의 厚薄 堅脆의 不同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形藏이 원래 한 타입이 아니므로 人間 形體의 厚薄과 藏의 虛實이 동일한 편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病因論의인 차원에서, 개체 체질적인 요소(內因)가 發病學的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靈樞 論勇篇에서 함께 烈風暴雨를 입은 사람들이 혹은 발병하고 혹은 발병하지 않는 이유를 皮肉의 薄弱으로 四時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며, 皮肉의 厚堅으로 四時의 虛風에 傷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靈樞 百病始生<sup>11)</sup>에서도 “虛邪之風이 身形과 아울러 兩虛를 相得하여 形體를 侵入한다”고 하여 질병 발생에서 외부의 각종 발병요소는 생명체 내부요소 즉 체질상태의 작용과 아울러서 경과함으로써 인체의 유해한 작용을 만든다고 보았다. 단순한 風雨寒濕의 邪氣만으로는 發病하기에 不足하고, 虛邪之風은 반드시 人身의 正氣의 虛함을 틈타서 疾病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素問 熱論<sup>12)</sup>에서 말하는 “邪氣所湊 其氣必虛”이다.

개체체질의 특수성은 어떤 발병 인자와 질병의 발병율을 유도한다. 靈樞 五變<sup>13)</sup>에서 주리와 肌肉의 상태 및 五臟의 脆弱한 것에 근거한 善病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臟腑組織의 堅脆剛柔의 不同한 差異性과 이런 差異性을 보이는 개체체질에 근거한 사람은 질병 발생의 情況도 差別이 있다고 보았다. 가령 寒에 쉽게 발병하는 사람은 陽氣가 평소에 허약한 체질이고, 熱에 쉽게 발병하는 사람은 陰氣가 평소에 허약한 체질이고, 肥濕한 사람은 痰濕으로 中風이 잘오고, 아원 사람은 火로 인하여 勞嗽가 잘 생기는 등이다.

특히 個體體質의 強壯 與否가 發病的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개체체질의 차이는 病邪에 대한 인체의 反應 狀態와 疾病의 轉化 規律를 다르게 만든다. 醫宗金鑑에서 인체에 감축된 邪氣가 비록 同一하더라도 사람의 形藏의 差異로 인하여 혹은 寒化하고, 혹은 熱化하고, 혹은 虛化하고, 혹은 實化하여 많은 양상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으며<sup>14)</sup>, 淸나라 末葉 章楠은 六氣의 邪氣의 陰陽 차이성과 함께, 인체 침입 후 침입한 인체의 陰陽強弱에 따른 변화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病之陰陽 因人而變”, “邪氣因人而化”라는 매우 중요한 個體病理의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sup>15)</sup>. 즉 濕邪에 감염되었을 경우 陽熱 體質은 濕이 陽을 좇아 化熱하여 濕熱이 되고, 陰寒 體質은 陰을 좇아 化寒하여 寒濕이 된다. 이런 轉變의 差異性의 원인은 각자의 타고난 稟性의 陰陽, 臟腑의 強弱 등으로 인하여 發病因子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化寒, 化熱, 化濕, 化燥 등으로 不同한 轉化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發病과 發病過程은 體質의 陰陽 偏重에 의하여 轉化되는 從化現象의 상대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 2) 個體體質과 發病 罹患性과 傾向性

인체 發病 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유기체 正氣의 強弱의 차

7) 王琦 主編, 臨床醫學從書(上冊), pp. 510-512

8)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 p. 83

9)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p. 18

1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영추, pp. 232-235

11) 홍원식, 앞의 책, pp. 286-291

12)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소문, pp. 116-118

13)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영추, pp. 210-212

14) 王琦 主編, 臨床醫學從書(上冊), p. 438

15) 匡調元 著, 人體體質學, pp. 165-168

우침과 융성함,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있고 없음과 융성함과 쇠퇴함이며, 한 개인의 正氣 強弱은 유기체의 체질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기는 인체체질이 가진 기능상태의 작용활동 방면에서의 일종의 반영이며, 인체 正氣 盛衰는 대부분 체질의 작용활동에서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질과 병인의 관계는 인체 정기의 發病 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개체 체질의 특수성은 유기체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지 아닌지에 있을뿐 아니라, 동시에 어떤 질병에 존재하는 傾向性, 罹患性의 差異에서도 잘 나타난다.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疾病을 일으키는 因子가 인체에 작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기체 正氣의 강약과도 관련이 있다. 인체의 생리평형에 대해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는 인체체질 상황이 결정되는 저항력을 파괴하고 초과한다. 즉 생리평형의 유지력과 조정 한도를 유지하던 개체가 邪氣를 다스리는 한계치를 초과하는 것이다.

張仲景은 “외부를 방위하는 기운”과 “스스로 조화로운”것으로 인체와 질병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정기의 기능을 묘사하였다<sup>16)</sup>. 즉 외부를 방위하는 것과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묘사했다. 여기서 “외부를 방위하는 기운”과 “스스로 조화롭다”라는 것은 인체 “정기”의 2가지 커다란 작용이다. 외부침입을 방어하고 외계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사기가 인체에 침입한 다음에 유기체의 스스로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유기체로 하여금 내부의 五臟六腑, 經絡, 氣血 등의 기능 활동을 보존하고, 상호 협조하여, 외사의 침습으로 인해 출현하는 영향을 조절하고, 유기체로 하여금 내부환경을 보존하게 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시킨다. 만약 사기의 영향이 유기체 내부조화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면 유기체의 기능은 문란과 조절 상실이 발생하고, 내부환경의 평형이 파괴되어 질병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장중경은 질병이라는 것은 사기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체질의 강약여부가 발병여부를 결정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직 사기에 저항하는 정기의 허약함 때문에 사기가 그것을 따른다고 본 것이다. 이와같이 질병의 발생은 한 방면으로는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의 존재와 종류와 파괴도에 따라 결정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역치의 대소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에 대해 감내하는 힘의 한계를 말하는 역치는 모든 개체마다 다르며, 이는 결국 개인의 체질상태와 밀접하게 직결되므로 체질 강약을 판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질병 과정은 실질적으로 정사투쟁의 과정으로 유기체가 외부 사기에 감염된 다음에 질병의 발생 여부는 개체 체질의 정기의 강약에 의해 결정된다.

개체와 개체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까닭의 본질은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체질상태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한 저항력이 서로 다르고, 감당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병사에 감염되더라도 병이 되는 경우와 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清代 名醫 徐靈胎가 醫學源流論의 病同人異論<sup>17)</sup>에서 治病必求其

本 所謂本者 人身之氣質是也라고 주장하면서 “天下有同此一病, 而治此則效, 治彼則無效, 且不惟無效而反有大害者, 何也? 則以病同人異也. 夫七情六淫之感不殊, 而受感之人各殊, 或氣體有強弱, 質性有陰陽, 生長有南北, 性情有剛柔, 筋骨有堅脆, 體有勞逸, 年齡有老少, 奉養有膏粱藜藿之殊, 心境有憂勞和榮之別, 更天時有寒煖之不同, 受病有深淺之各異, 一概施治則病情雖中, 而于人之氣體 迥乎相反, 則利害亦相反矣. 故醫者, 心細審其人之種種不同, 而後輕重緩急, 大小, 先後之法, 因之而定. 內經言之極細 卽鍼灸及外科之治法盡然, 故凡治病者 皆當如是審察也”라고 말하여 질병 치료에의 근본이 사람의 개체적인 체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체질은 발병 중에 있어 중요한 주도적인 작용을 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는 생명체 내부의 개체적인 특성의 상태를 통해서 인체에 危害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外因뿐만 아니라, 정신감정 요소·음식노권·담음 어혈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감정이 지나치거나, 극렬하거나 또는 오래 지속될 경우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疾病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개체 생명체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정서 변화로 인하여 감정이 지나쳐서 생리적인 신체 상태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생리작용의 조화 및 氣의 승강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생리평형을 파괴하고 질병의 발생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개체의 체질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정 자극에 대하여 감당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종류와 같은 정도의 자극에도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상태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진다. 內經의 九氣論에 대하여 吳謙은 醫宗金鑑에서 “무릇 이 9가지 기운으로 생기는 질병은 건강한 사람은 걸리더라도 기운이 윤행하면 낫고, 약한 사람이 걸리면 병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어떤 감정이 극렬할 때 생명체 발병여부는 자극의 종류·양을 나타내는 정도·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유기체 체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이처럼 극렬한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들어 사지가 싸늘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며, 어떤 사람은 평안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 듯하여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개체 특성인 체질이 病因과 발병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는 서로 다른 체질은 서로 다른 질병인자에 대해서 잘 걸리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질병의 발현 경향성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개체는 자신의 체질적인 특수성에 의해 잘 걸리는 질병의 경향성을 결정한다. 개체 생리 병리에 존재하는 이런 질병에 대한 친화적인 경향성과 차이성은 결국 체질 차이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靈樞·五變》편<sup>19)</sup>에서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고, 주리가 성글면 風병에 잘 걸리고... 오장이 모두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消痺병에 잘 걸리고... 주리가 성글면서 근육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痺病에 잘 걸린다”라고 말했고, 《영주·論勇》편<sup>20)</sup>에서는 “색깔이 누렇고 피부가 얇으면서 근

pp. 42-43

18) 王琦 主編 鄧曉波 譯, 앞의 책, p. 201

19) 홍원식, 황제내경영추, pp. 210-212

20) 홍원식, 앞의 책, pp. 232-234

16) 王琦 主編-김달래 譯, 中醫體質學, pp. 196-204

17) 徐靈胎 著-원광대학교 한의대 17기 졸업위 공역, 國譯 徐靈胎醫書,

육이 약한 사람은 봄철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색깔이 하얗고 피부가 얇으면서 근육이 약한 사람은 여름철의 虛風(暴)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대 吳德漢의 醫理輯要·綿囊覺後編에서 "풍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본래 걸의 기운이 약하고, 한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본래 양기가 약하고, 열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음기가 본래 약하고, 음식으로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비위가 반드시 허약한 사람이고, 과로로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중초의 기운이 반드시 손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sup>21)</sup>. 이는 모두 질병에 대한 친화적인 경향성과 차이성은 결국 체질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이 바로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렇게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은 일정한 역치에 도달하여 발병에 필요한 최저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발병하게 되고 임상증상이 표현된다. 이렇게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의 경향성은 생명체 체질에 존재하는 생리범위 내의 陰陽 寒熱 虛實의 편향 성세에 따른다. 또한 인체내의 이런 偏向性은 개체 체질의 선택적인 것으로 내부적인 생리 병리 패턴의 차별·외계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와 친화성·질병에 대한 내성 차이를 결정한다고 판단된다.

### 3. 發病與否와 罹患性 및 傾向性의 기전 - 同氣相求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이 반드시 모두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은 일정한 역치에 도달하여 발병에 필요한 최저한계에 다다랐을 때만 발병하게 되고 임상증상이 표현된다.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의 경향성은 유기체 체질의 자신에 존재하는 생리범위 내의 陰陽 寒熱의 편향에 따르는 것이다. 유기체내의 이런 편향성은 유기체의 외계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 친화성 및 질병을 참아내는 차이를 결정한다. 이는 바로 일종의 차별적인 선택성으로서 同氣相求로써 설명이 가능하다<sup>22)</sup>. 어떤 유형의 체질은 어떤 유형의 병인에 대하여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素問 標本病傳論<sup>23)</sup>에서 "人有客氣 有同氣"라고 하였는데, 이는 天之客氣와 人體가 이에 相同相應하는 六氣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인체에 內在하는 因子와 외계의 發病 因子가 서로 상응하여 질병을 형성한다는 同氣相求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同氣相求是 개체 병리의 病因 病機論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개체 체질은 보다 더 쉽게 감수하는 淫邪가 있다는 것이다. 素問 八正神明論<sup>24)</sup>에서 "人體의 虛한 것과 虛邪가 相感하면, 뼈에 이르며 五臟을 傷하니, 天忌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天人相應論의 立場에서 兩虛相感에 의한 發病論을 펼치면서, 人體와 天地自然의 同氣相求를 중시하였다. 또한 靈樞 百病始生<sup>25)</sup>에서 "風雨寒熱이 虛한 곳을 얻지 못하면 邪氣가 홀로 人體를 해치지 못하며, 突然한 疾風暴雨에도 發病하지 않는 사람은 虛한 곳이 없는 것으로 邪氣의 侵入은 반드시 人身의 虛한 것과 相感하여 일어난다"고 하여 個體의 正氣의 狀態

에 따른 邪氣의 侵入을 말하고 있으며, "天時와 身形이 虛實을 參酌하여 큰 병을 일으킨다"고 하여 天時의 六淫이 人體를 侵入하는 것은 身形의 個體 體質에 相應하여 혹은 實하게 혹은 虛하게 同氣相求의 기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內經의 이런 同氣相求論의 立場은 환자의 평소 증상과 관련지워 체질적인 인자가 어떤 발병 인자에 보다 쉽게 감응하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 風病에 잘 걸리는 자는 表氣가 素虛하여 그 素證이 虛證으로 발현되며, 寒邪에 잘 감촉되는 자는 陽氣가 虛弱한 것으로 素證이 陽虛證으로 나타나며, 傷食에 잘 걸리는 자는 脾胃가 반드시 虛弱한 것으로 脾胃證의 素證이 나타나며, 勞倦傷에 쉽게 걸리는 자는 中氣가 반드시 損傷된 것으로 中氣虛證의 素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개체체질의 인자는 발병인자의 감응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發病의 時期에는 반드시 개체체질의 正氣가 부족한 時期라고 하겠다.

또한 同氣相求是 發病 類型, 轉變되는 趨勢의 傾向性, 淫邪의 성질 등이 개체체질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靈樞 百病始生에서 "氣有定舍"라고 하여 각종 邪氣의 인체 침입에는 體內 일정한 부위에 稽留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素問 咳論<sup>26)</sup>에서 五臟이 病을 일으키는 時期가 있고 그 시기가 아니면 전변되며, 치료에도 五臟이 각각 그 시기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外部 邪氣와 人體 內部 體質의 正氣의 관계에서 同氣相求論의 發病 過程의 이해는 흔히 傷寒의 太陽病과 直中 陰經의 기전 說明에서 자주 관찰된다. 吳鞠通은 溫病條辨<sup>27)</sup>에서 傷寒의 침입이 足太陽에서 비롯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寒邪와 足太陽膀胱의 寒性을 同氣相求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흔히들 傷寒 直中 陰經은 元陽素弱으로 陰寒의 침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脾陽素弱으로 直中 陰經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同氣相求是 六淫에 의한 發病, 發病 類型, 個體體質 類型 상호간의 相合하고 相利하는 關聯性을 密接하게 闡明하는 기전으로 활용 가능하다.

### 4. 病因으로서의 病邪와 인체 反應으로서의 病證에 대한 구분

六氣에 대하여 病因으로서의 病邪와 病證의 구분이 필요함을 명료하게 주장한 것은 청대 장남에서 관찰된다. 청대 章楠은 醫問棒喝 條例<sup>28)</sup>에서 河間의 '六氣皆從化火'를 說明하면서 사람의 體質이 同一하지 않아서 感受된 邪氣가 비록 같더라도 病變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제시하고서, 暑의 說明에서 暑는 火와 濕의 二氣가 합한 것으로 그 證에 陰證 陽證이 있고 '中暑는 陰證이 되고 傷暑는 陽證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火에 치우친 것은 陽證이 되고 濕에 치우친 것은 陰證이 되며, 體質이 강하면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이 되고 體質이 弱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이 됨을 알지 못한 연유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暑邪와 暑病에 대한 그의 說明은 六氣陰陽論<sup>29)</sup>에서 보

21) 王琦 主編 김달래 譯, 앞의 책, p. 202  
 22) 匡調元, 앞의 책, p. 172  
 23) 홍원식, 황제내경소문, pp. 231-232  
 24) 홍원식, 황제내경소문, pp. 100-103  
 25) 홍원식, 황제내경영추, pp. 286-291

26) 홍원식, 황제내경소문, pp. 142-144  
 27) 李離坤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吳鞠通醫學全書, pp. 19-99  
 28) 김중환-김달호 옮김, 章楠 지음, 醫問棒喝 醫論篇, pp. 17-26  
 29) 김중환-김달호 옮김, 앞의 책, pp. 27-42  
 30) 김중환-김달호 옮김, 앞의 책, pp. 43-74

다 分明하게 나타난다. 人體가 暑邪에 感觸되었을 때, 만약 타고난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邪가 火를 좇아 燥로 변화하고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邪가 寒을 좇아 濕으로 변화하니 이는 邪의 陰陽이 人體의 陰陽을 좇아 변한 것이라고 六氣를 邪로 論하는 것과 病으로 論하는 것의 區分이 必要하며, 邪氣가 人體를 損傷시킬 때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따라 病의 狀態가 變化하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外感과 內傷으로 畏寒하거나 發熱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因하여 變하는데 虛實 陰陽이 서로 原因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縱橫으로 뒤섞이니 治法도 마땅함을 좇되 어느 한쪽에 執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六氣陰陽論 附問答<sup>30</sup>에서는 仲景의 白虎湯이 단지 清火할 뿐이고 去濕하는 藥이 없으니 곧 暑에 반드시 濕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물음에 答하기를, 暑氣와 暑病은 구분해야하는데 暑氣는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나 暑氣가 人體를 損傷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또한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서 變하는데,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는 火를 좇아 燥로 變하며 바로 이런 燥와 火가 合한 氣가 바로 白虎湯의 證이 된다. 만약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는 寒을 좇아 濕으로 變할 것이니 寒과 濕이 合한 氣에 白虎湯이 마땅하지 못하고 大順散 冷香飲같은 辛熱한 方劑나, 六和湯 正氣散같은 溫燥한 方劑도 있으며, 桂苓飲같은 濕과 火를 清消하는 治法도 있어 仲景의 方劑를 補充한다고 하여 暑病에서 人體의 體質에 의한 疾病의 變化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處方까지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仲景의 “太陽中熱者 渴是也,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의 條文은 太陽病 中熱證에 身熱 渴症이 난다는 것으로 火가 旺盛하여 燥로 변한 暑病이 되고, “太陽中渴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朧澀”의 條文은 濕이 甚한 暑病으로 仲景이 處方을 적지 않았던 것은 後世에 글이 毀損되거나 缺如된 것으로 清暑益氣湯이 適合하다는 見解에 同調하면서, 病이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 變化하고 더불어 暑라는 하나의 氣가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도 역시 分明하다고 하여, 다시 한번 사람 體質에 따른 病의 變化를 더욱 強調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人體 중에 陰이 旺盛하다면 寒이 많아서 熱藥을 받아들일 수 있고 陽이 旺盛하다면 火가 많아서 涼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陽이 虛하면 쉽게 濕이 생기고 陰이 虛하면 쉽게 燥로 變하니 또한 자연히 同一하지 않으며, 그래서 六氣가 流行하는 것과 病이 되는 것은 本來 當然히 區別해야하나 사람의 體質이 각기 달라서 그 變化는 다 밝힐 수 없다고하여 韓藥의 應用에까지 이어지는 活用法을 主張하며,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陰陽의 強弱이 同一하지 않은 것으로 因하여 邪氣가 感受될 때 輕重이 같지 않으므로 病의 變化가 가지런하지 못한 이유를 재삼 說明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暑病의 陰陽證은 暑邪를 이루는 火濕의 外邪의인 要因 외에 人稟體多火하여 燥火로 化하는 陽證인 경우, 人稟體多寒하여 寒濕으로 化하는 陰證의 경우로 구분하여

사람의 稟賦된 體質에 따른 變化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결 론

辨證施治의 근본과 당위성이 되는 개체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개체 생리 병리와 病因의 상관성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체 외부 요소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개체의 發病 與否는 개체 체질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개체 체질의 특이성으로 인해 어떤 질병에 대해 잘 걸리는 罹患性和 傾向性을 가진다. 그리고 발병 여부와 이환성, 경향성은 同氣相求의 기전으로 설명 가능하며, 여기서 病因으로서의 病邪와 인체 침입후 발현하는 病證으로서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개체체질을 중심으로 질병의 轉變, 病證, 治療 등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辨證施治의 기본이 되는 개체체질론을 생리 병리 진단의 연계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달래 譯, 王琦 主編. 中醫體質醫學.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9.
2. 김중환 김달호 율김, 章楠 지음. 醫門棒喝 醫論篇. 부산, 소강출판사. 1997.
3. 원광대학교한의대 제17기 졸업위 共譯. 國譯徐靈胎醫書, 서울, 대성출판사. 1994.
4. 윤길영.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한얼문고. 1973.
5. 윤길영.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성보사. 1983.
6. 홍원식. 정고환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7. 홍원식. 정고환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8.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
9. 王琦 主編. 臨床醫學從書(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10. 李離坤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吳鞠通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1. 김규열. 장남의 의역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2.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5호, 2002.
13.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체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2004.
14.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2호, 2004.
15. 전태홍. 내경을 중심으로 한 체형의 肥瘦에 대한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6권, 1992.
16.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1). 동의병리학회지 7권, 1992.